‘계시다’의 양용 용법에 대한 연구 - ‘있다’와 관련하여 -

김 선 영
(성신여자대학교)

Kim sun young. (2014). The research on the double usage of ‘Geysida’ as an adjective and a verb - compared to the case of ‘Issda’. *Language Research,* 50(1), 3-24.

I examined the double usage of ‘geysida’ as an adjective and a verb compared to the case of ‘issda’. ‘Geysida’ is used as an honorific word of ‘issda’ when it takes a human noun as the subject and as both an adj. and a verb in each usage. But the adj. ‘geysida’ is restricted in situations that are dynamic, or repeated and temporary. ‘Issda’ is also used as a verb when it takes a human noun as the subject although there are some exceptions. It is used appropriately in the situations where ‘issda’ indicates specific actions or its subject functions as the agent.
‘Geysida’ as an aux. predicate also functions as an adj. and a verb regardless of its aspectual meaning. But the aux. adjective is restricted in the temporary situation. In the case of ‘issda’, its verbal usage is allowed depending on the verbs that are combined with it. The aux. verb ‘-go issda’ can be used in a combination with verbs that take the agent subject, as do ‘-eo issda’, but not to an absolute degree.

Keywords: the usage restriction of the adjective ‘geysida’, the dynamic or repeated or temporary situations, the usable situations of verb ‘issda’, the denotation of specific actions, the agent subject, action verbs

1. 서 론

본고는 ‘계시다’의 형용사 · 동사 양용 용법의 특징을 ‘있다’와 관련지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표적인 형용사 · 동사 양용 용언인 ‘있다’, ‘없다’, ‘계시다’는 전통문법 초기부터 품사 판별 문제에 대해 주목을 받고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이들 용언의 품사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들 용언이 지닌 공시적 · 통시적인 특성들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1] ‘계시다’는 주로 ‘있다’와의 공통된 특성을

1) 이완응(1929), 서정수(1991, 1996), 최기용(1998) 등에서는 ‘있다, 없다, 계시다’의 동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을 면밀히 고찰하였으며 송철의(2001=2008), 박부자(2001), 이안구(2002) 등에서는 ‘있다, 없다’의 공시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통시적인 변천 과정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기존 연구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다. ‘있다’가 지닌 형용사적 특성과 동사적 특성을 밝히는 과정에서 ‘계시다’도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경우 그 특성이 함께 언급되어 왔다. 두 용언의 형용사적 용법과 동사적 용법을 비교하면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그 양상이 복잡한 것으로 관찰된다.

(1) 가.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집에 {계시다, 계신다}.
　　나. 철수는 지금 집에 {있다, ??있는다}.
(2) 가. 집에 할아버지가 {계신, 계시는} 사람은 손을 들어라.
　　나. 집에 동생이 {*있은,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라.

(1, 2)에서 ‘계시다’의 형용사적 용법과 동사적 용법이 ‘있다’의 형용사적 용법과 동사적 용법에 완벽하게 대응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1, 2)에서 ‘계시다’는 형용사, 동사로의 활용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있다’의 경우 ‘있는다, 있은’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차이점에 주목하여 ‘계시다’가 ‘있다’와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 큰사전』, 『국어대사전』에서는 ‘계시다’를 ‘있다’의 높임말로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사전에 따라 단순히 ‘있다’의 높임말로 풀이되기도 하고 ‘있다’가 지닌 일부 용법에서만 ‘계시다’가 이의 높임말로 쓰이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그리고 ‘계시다’가 높임말로 사용될 수 있는 ‘있다’의 용법에 대한 설명도 차이를 보여 ‘계시다’를 ‘있다’와 관련지어 이해하는 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계시다’를 ‘있다’와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3]

에서는 용언 어간과 문법 요소의 결합 여부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설명하였는데 본고에서는 문법 요소가 어떠한 상황에 결합되는지 그 결합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다음과 같이 ‘계시다’와 ‘있다’의 품사 처리에서도 차이를 보여 그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금성』과 『연세』 두 사전을 비교하면 『금성』에서는 ‘계시다’는 형용사로, ‘있다’는 동사로 처리한 반면에 『연세』에서는 이와 반대로 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이들 용언의 기본적인 용법을 파악하는 데에서부터 어려움을 준다.
[표] ‘있다, 계시다’의 품사에 대한 사전 기술

	『우리말』	『금성』	『연세』	『표준』	세종
계시다	동	형	동	동	동, 형
있다	동	동	형	동, 형	동, 형

3) ‘계시다’와 ‘있다’가 의미상 높임말과 낮춤말의 관계를 맺으면서 형용사 용법과 동사 용법이 서로 어떠한 대응 관계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있다’와 ‘계시다’를 관련시켜 논의한 선행 연구로 서정수(1991)과 배주채(2000)을 들 수 있다. 서정수(1991)에서는 ‘있다’와 ‘계시다’가 지닌 동사적 특성과 형용사적 특성을 세밀히 검토하고 이들을 형용사 · 동사 양용 용언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배주채(2000)에서는 ‘있다’와 ‘계시다’의 품사 처리에 대한 현행 사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계시다'의 용법을 검토한 후 '있다'가 이와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2)에서 '계시다'는 '있다'에 비해 형용사적 용법과 동사적 용법이 덜 복잡하게 나타나 비교적 단순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술적인 면에서 보다 용이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있다'의 특성은 많이 연구되어 있는 데 반해 '계시다'는 그렇지 못하다.[4] 본고는 '계시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두 용언 간의 차이점을 '계시다'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본용언 '계시다'

먼저 현행 사전에서 '계시다'를 '있다'와 관련시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계시다'를 동사로 처리하며 다음과 같이 동사 '있다'의 높임말로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동사 '있다'가 지닌 네 가지의 의미 용법 중 하나만을 '계시다'와 관련시켜 '계시다'의 의미가 불완전하게 기술된 것으로 확인된다.

계시다
[Ⅰ]「동사」
【…에】
'있다01[Ⅰ][1]「1」'의 높임말.
¶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교수님은 지금 댁에 계실 겁니다./안에 누구 안 계시니?/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위의 '있다01[Ⅰ][1]「1」'은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라는 의미 용법에 해당한다. 이러한 용법 외에도 '사람이 어떤 직장에 계속 다니다'라는 의미와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라는 의미가 동사 '있다'의 용법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있다'가 후자의 의미들로 사용될 때도 동사 '계시다'가 이의 높임말이 될 수 있는데도 이 의미들은 '계시다'의 용법으로 기술되지 않았다.

『연세한국어사전』의 경우를 살펴보면 '계시다'를 『표준』과 마찬가지로 동사로 처리하고 그 의미 용법으로 '(높은 분이나 어른이 어느 장소에) 머무르다'와 '(높은 분이나 어른이 어떤 직위나 자격으로) 있다'를 두었다. 그리고 '(높은 분이나 어른이) 있다'의 의미에 대해서는 [형용사적으로 쓰이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동사적

4) '있다, 없다, 계시다'에 대한 연구에서 대부분 '있다'가 주된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없다'의 경우도 본격적인 연구가 많지 않으나 정언학(1995), 박부자(2001), 이안구(2002)에 비중 있게 다루어져 있다. '있다, 없다'와 달리 '계시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용법에 해당하는 '머무르다'의 의미를 나타낼 때 '계시다'는 형용사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형용사적 용법에 해당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동사로 활용될 수 있다. 『연세』 사전 또한 의미 용법에 따른 '계시다'의 형용사 · 동사로의 사용 여부가 정확하게 기술되지 않았다.

현행 사전에서 의미 용법에 따른 '계시다'의 형용사 · 동사로의 활용 여부가 불완전하게 기술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계시다'는 '있다'가 인간 명사를 주어로 취할 때 그 높임말에 해당한다. 인간 명사가 주어로 오는 구문에 한정하여 의미 용법에 따른 '계시다'의 형용사 · 동사로의 사용 여부를 살펴보자.

(3) 가.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계신다}고 믿는다.
나. 방 안에 할아버지가 {계시다, 계신다}.
다. 건강 문제로 지금 할아버지는 서울에 {계시다, 계신다}.
라. 김 선생님은 작년에 퇴직을 하시고 지금은 철도청에 {계시다, 계신다}.
마. 아버지께서는 도로공사 직원으로 {계시다, 계신다}.
바. "아버지는 잘 계세요?" "그래. 잘 {계시다, 계신다}."
사. 사업 실패로 선생님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계시다, 계신다}.

(3)은 『표준』과 『연세』 사전에 기술된 '있다'의 용법 중 인간 명사를 주어로 취하는 용법의 서술어를 '계시다'로 바꾸어 만든 것이다.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용법에서 '계시다'는 형용사로도, 동사로도 활용된다.[5)]

인간 명사를 주어로 취하는 '있다'의 용법에서 높임의 대상이 주어로 오면 '계시다'가 사용되며 각각의 용법에서 '계시다'는 형용사로도,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 (3가~사)의 용법들이 '계시다'의 용법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또한 모든 용법에서 '계

5) (3)의 두 활용형의 적격성 판단을 위해 세종 현대 국어 말뭉치와 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Naver), 다음(Daum)의 전자 신문, 도서 등에서 용례를 참고하였다. (3)의 두 활용형은 실제 사용에서 선호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3가)의 용법은 『연세』에서 '[형용사적으로 쓰이어]'로 표시된 점에 비추어 본다면 형용사 활용형이 보다 빈번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3나)의 용법은 『표준』과 『연세』에 동사적 용법으로 기술되어 있는 점에서 동사 활용형이 보다 빈번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히라이 세이미(2002: 64-65)에서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삼백여 명의 대학생과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여 두 활용형 중 어느 쪽이 보다 선호되어 사용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3가)의 용법에서도 '-느-'가 통합된 '계신다'가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관형사형은 '계신'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용법에서도 어말 어미에 따라 동사, 형용사로의 활용 선호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방언이나 세대에 따라서도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최현배(1937/1955: 180-181)에서는 서울 근방에서는 '계시다'의 베풂꼴(敍述形)과 매김꼴(冠形詞形)로 '계시다, 계신'이 쓰이는 데 반해 다른 지방에서는 '계신다, 계시는'이 쓰이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배주채(2000: 241)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젊은 층에서는 평서형은 '계신다'를, 관형사형은 '계신'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어말 어미나 방언, 세대에 따른 '계시다'의 형용사, 동사로의 활용 선호도에 대한 고찰은 추후의 연구 과제로 돌린다.

시다'가 형용사 · 동사 양용 용언으로 쓰이는 사실이 사전 등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계시다'가 언제나 양용 용언으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다음의 예를 보면 형용사 '계시다'의 경우 사용상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4) 할머니는 조용히/가만히/미동 없이/선 채로 {??계시다, 계신다}.

(4)는 (3바)의 용법에서 '잘' 대신에 보다 구체적인 상태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부사를 선행시킨 것이다. 이에서 동사 '계신다'는 자연스러운 반면에 형용사 '계시다'는 그 쓰임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별된다. 형용사 '계시다'는 다음과 같은 예들에서는 사용이 제약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5), (6)은 동적인 상황이나 반복적, 일시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동사 '계시다'는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반면에 형용사 '계시다'는 쓰임에 이상을 보인다.

(5) 가. 지금은 전혀 움직일 생각 마시고, 여기 가만히 {계시는, *계신} 것이 상책이라고 하시더랍니다.
나. 내 마음대로 텔레비전을 봐도 책을 읽어도 잠을 자도 엄마는 가만히 {계신다, ??계시다}.
(6) 가. 선생님께서는 이 곳에 오시면 이 방에만 {계신다, ??계시다}.
가.′ 선생님께서는 이 곳에 오셔서 이 방에만 {계신다, 계시다}.
나. 자식들 골탕 먹이려고 거기 일부러 {계신다, ??계시다}고 하셨어요.
나.′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거기 {계신다, 계시다}.
다. 아버지께서는 그 회사에 잠깐 과장으로 {계신다, ??계시다}.
다.′ 아버지께서는 그 회사에 과장으로 {계신다, 계시다}.
(이상 김선영 2011: 76 (27))

(5가)에서 '계시는'은 동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계시는'은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취해야 할 선택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움직이는 것'과 대립되는 선택항으로 기능함으로써 동적인 특성이 부각되며 이에 따라 '-느-'의 결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5나)에서도 부사 '가만히'에 의해 한정됨으로써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서 '계신다'는 자연스러운 반면에 '계시다'는 그렇지 못하다.

반복적인 상황이나 일시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도 '계시다'에 '-느-'의 결합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6가′)에서 '계신다, 계시다' 모두 자연스러운 사용을 보이

는 반면에 (6가)에서는 '계신다'만이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6가′)의 '-어서' 부사절은 일회적인 상황을 나타내나 (6가)의 '-면' 조건절은 여러 번 일어나는 반복적인 상황으로 해석된다. 반복적인 상황에서는 동사 '계신다'만이 자연스러운 사용을 보인다. (6나)는 (6나′)과 달리 '계신다'만이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6나)에서 '일부러'의 수식을 받음으로써 '계신다'만이 자연스럽게 쓰였다고 할 수 있다. '일부러'는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면서 일상적인 행동이나 상황에서 벗어나 일시적으로 일어난 상황으로 그려 준다. (6나)는 잠시 계시는 상황으로 해석되며 이로 인해 '계신다'만이 자연스럽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다)도 부사 '잠깐'에 의해 일시적인 상황으로 그려지므로 (6다′)과 달리 '계신다'는 쓰임이 자연스러운 반면에 '계시다'는 어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6)

지금까지 의미 용법에 따른 '계시다'의 형용사, 동사로의 사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인간 명사를 주어로 취하는 '있다'의 용법들에서 높임의 대상이 주어로 오면 '계시다'가 사용되며 각각의 용법에서 '계시다'는 형용사로도, 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다만 형용사 '계시다'의 경우 동적인 상황이나 반복적, 일시적인 상황에서는 사용의 제약을 보인다.

다음으로 '있다'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역시 의미 용법에 따른 형용사, 동사로의 사용 여부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형용사 '있다'에 대해 『표준』과 『연세』 사전에 기술된 내용을 비교하면 용법의 배열 순서나 구체적인 뜻풀이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뿐 선정된 용법들이 거의 일치된다. 그러나 동사 '있다'의 의미 용법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여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표준』에서는 동사 '있다'를 설정하고

---

6) 심사자께서는 (5, 6)에서의 '계시다'와 '-ㄴ-'의 결합 양상이 목정수(2008)에서 형용사, 동사의 구분에 대해 언급한 바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해 주셨다. 목정수(2008)에서는 '-ㄴ-'는 앞에 붙은 어간, 즉 미명세의 동사(=어간)를 동사적으로 활성화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형용사적으로 활성화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동사, 형용사의 품사 구분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과 궁금한 점이 있어 여기에 이를 밝히고자 한다.

목정수(2008: 394)에서는 경상도 진주 방언에서는 '먹는구나' 대신에 '먹구나'로 활용되는데 기존의 동사, 형용사의 품사 구분에 따르면 이를 형용사로 판별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중앙어에서의 동사, 형용사의 구분 기분을 진주 방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보다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 방언에서는 중앙어와 달리 '-ㄴ-'가 형용사 어간과 계사 어간에도 결합될 수 있다고 하며 또한 현재 시제의 기능 외에도 경험의 빈도 차이를 드러내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는데(홍종림 1993: 38, 문숙영 1998: 103)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제주 방언에서는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이 중앙어와 다르게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통시적인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ㄴ-'의 분포와 기능이 어떻게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계시다, 있다, 없다'에 한정해서 '-ㄴ-'의 통시적인 변천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매우 복잡한 것으로 확인된다. '계시다'의 변천 과정을 문헌에서 살펴보면 '계시다'는 현대 국어로 오면서 본격적으로 '-ㄴ-'와 결합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있다'의 경우 '잇ᄂᆞᆫ, 잇ᄂᆞ니라, 잇ᄂᆞ냐' 등은 중세 국어에서부터 폭넓게 사용되는 반면에 '있는다'는 현대 국어에서야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없다'의 경우 '업ᄂᆞᆫ, 업ᄂᆞ니라, 업ᄂᆞ냐' 등은 18세기에 사용이 확대되어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이로 통일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에 '업ᄂᆞ다'의 형식은 17세기 문헌인 ≪서전언해≫에 한 예만이 등장한다. 이와 같이 용언에 따라 '-ㄴ-'가 결합되는 시기가 달리 나타나기도 하며 어말 어미에 따라 용언 어간과 '-ㄴ-'의 결합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 점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다음의 네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있다01
[Ⅰ]「동사」
[1]【…에】
「1」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
¶ 내가 갈 테니 너는 학교에 있어라./그는 내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
「2」 사람이 어떤 직장에 계속 다니다.
¶ 딴 데 한눈팔지 말고 그 직장에 그냥 있어라.
[2]【-게】(('-게' 대신에 '-이/히' 부사 따위나 다른 부사어가 쓰이기도 한다))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 떠들지 말고 얌전하게 있어라./가만히 있어라./우리 모두 함께 있자.
[3]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다.
¶ 배가 아팠는데 조금 있으니 곧 괜찮아지더라./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다.

『연세』에서는 위의 네 가지 용법 중 [1]「1」의 '머물다'와 [3]의 '시간이 경과하다'에 대해서만 동사적으로 쓰인다고 명시하고 있다. [1]「2」의 용법은 형용사의 용법에만 속하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용법 [2]는 단독으로 명시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빠는 늘 방관자로 있었다'와 같은 예가 형용사의 용법에 제시된 점으로 보아『연세』에서는 형용사의 용법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안구(2002: 11)에서는 '있는다'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예로 다음의 예를 제시하였다.

(7) 가. 오빠는 (학기 중에는) 학교 근처 친척집에 <u>있는다</u>.
나. 동생은 (보수는 상관하지 않고)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에만 <u>있는다</u>.
다. 그는 (결혼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계속) 독신으로 <u>있는다</u>.
라. 아이가 (손님이 있을 때는) 얌전히 <u>있는다</u>.
마. (치과에 가서는) 충치 치료를 위해 입을 벌린 상태로 <u>있는다</u>.
(이상 이안구 2002: 11 (3))

(7가)의 '있다'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다, 지내다'의 의미를 나타내며 (7나)는 '근무하다, 다니다'의 의미를, (7다)는 '자격이나 신분의 상태로 존재하다'의 의미를, (7라, 마)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아)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7)에서 '있는다'의 사용이 자연스러운 점에 근거하여 (7)의 네 가지 용법을 동사 '있다'의 용법으로 판별하고자 한다. 그리고 '저 아름다운 햇빛을 두고 이 방 안에만

있는다는 건 자연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지 않나?'와 같은 예에 근거하여 '어떤 곳에 위치하다'의 의미 용법 또한 동사 '있다'의 용법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앞서 동사 '계시다'의 용법과 비교하면 그 일부가 동사 '있다'의 용법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비교 ·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동사 '계시다'와 동사 '있다'의 의미 용법

의미 용법	동사 '계시다'	동사 '있다'
①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지내다	할아버지는 지금 서울에 계신다.	오빠는 학기 중에는 보통 친척집에 있는다.
② 어떤 곳에 위치하다	방안에 할아버지가 계신다.	내일은 집에 있는다.
③ 다니다, 근무하다	김선생님은 지금 철도청에 계신다.	동생은 내년까지 그 회사에 있는다고 했어.
④ 어떤 자격이나 신분의 상태로 존재하다	아버지께서는 도로 공사 직원으로 계신다.	오빠는 계속 독신으로 있는다고 했잖아.
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가만히 계신다.	가만히 있는다.
⑥ 존재하다	80대의 노인이 한 분 계신다.	×
⑦ 어떠한 상태에 놓이거나 처하다	선생님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계신다.	×

표 1에서 ①~⑤는 동사 '계시다'와 '있다'의 공통된 용법에 해당하며 ⑥, ⑦은 동사 '계시다'에만 해당된다.[7] 그런데 동사 '있다'의 경우 보다 특정한 상황에 사용이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임홍빈(2001: 751-752)에서는 다음의 (8나)의 현재의 동작

7) 동사 '있다'에만 포함되는 용법으로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다'에서의 '있다'를 추가할 수 있다. 이에서 '있다'는 '있으면, 있으니, 있어' 등의 부사형으로만 활용되어 '-느-'의 결합 여부로는 품사 판별이 어렵다. 그러나 시간 부사에 목적격 조사 '을'이 통합될 수 있는 점에 근거하여 '있다'를 동사로 판별하고자 한다. 『표준』과 『연세』에서는 이를 '시간이 경과하다'로 풀이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풀이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배주채(2000: 232)에서는 '시간'은 주어가 아니라 시간 부사로 처리되어야 하며 그 주어는 사람으로 '사람이 얼마의 시간을 지내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아래 제시된 바와 같이 '사흘만'을 '사흘이'로 대체하면 부자연스러운 반면에 '사흘을'은 자연스럽게 대체될 수 있다. 시간 부사에 '을'이 결합되는 것은 '며칠을 걸었다'와 같이 동사문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따라서 '사흘만 있으면'의 '있다'는 동사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의미가 표 1의 용법 ①과 비슷하며 (다)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용법 ①에도 '사흘을'과 같은 시간 부사어가 통합될 수 있다. 용법 ①과 유사하나 '사흘만 있으면'에서는 장소 부사어가 통합될 수 없는 점에서 용법 ①과는 구별된다.
가. *앞으로 사흘이 있으면 추석이다.
나. 앞으로 사흘을 있으면 추석이다. (이상 배주채 2000: 232 (7, 8))
다. 제주도에서 사흘을 있었는데(실질적으로는 이틀이지만), 기념품 하나 안 산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다. (blog.naver.com/sh88124/20108476071)

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있는다'의 쓰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8나)는 (8가)에 비해 수용성이 확연히 떨어진다. 따라서 의미 용법 외에 동사 '있다'의 사용 조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8) 가. 나는 내일 여기에 있는다. (장차의 일을 표현)
나. *철수는 지금 집에 있는다. (현재의 사실에 대한 표현)
(이상 임홍빈 2001: 751)

이안구(2002: 9-10)에서는 (7)의 구문들이 시간적 폭이 설정될 수 있는 동사의 의미 특성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7가)의 '머무르다, 지내다'의 의미와 (7나)의 '근무하다'의 의미는 유정물의 존재가 시간적 폭을 갖고 지속된다는 특징을 가지며 (7다)의 '얌전히 있는다'는 '얌전하다'와 비교하면 시간적 폭이 설정될 수 있으며 (7라)의 '독신으로 있다'와 (7마)의 '입을 벌린 상태로 있다' 또한 '독신이다', '입을 벌린 상태이다'와 비교하면 시간적 폭과 관련된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사 '있다'의 사용 조건을 이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시간적 폭을 갖는 상황에서는 동사 '있다'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가정은 동사 '있다'의 충분한 사용 조건이 되지 못한다. 시간적 폭의 측면에서 (8나)는 (8가)보다 좁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용법 ⑦ 또한 시간적 폭이 ③이나 ④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로는 사용되지 못한다.

동사 '있다'는 이것이 구체적인 동작을 지시하는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된다.[8] 양상 부사어의 수식을 받아 이와 함께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용법 ⑤의 경우 동사 '있다'는 특별한 제약 없이 사용된다. 그런데 '잘, 무사히'와 같이 다소 추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경우 동사 '있다'는 사용에 이상을 보인다.

(9) 가. 친구가 갑자기 때리고 도망을 갔는데, 분명 화를 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쩔 줄을 모르고 가만히 {있는다, 있다}고 해 봅시다.
나. 그는 고향에 잘 {??있는다, 있다}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 목욕을 좋아라 하는 우리 수, 물에서 나와서는 잘 {있는다, 있다} 했더니 곧 울어버린다.

(9가)에서 '있는다'는 '있다'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반면에 (9나)의 '잘 있는다'는 사용에 이상을 보이는데 (9나)의 문맥에서 도출되는 '잘'의 의미 때문인

8) 동사 '있다'에 대한 설명은 김선영(2008)과 김선영(2011: 64-72)에서 관찰된 바에 의한 것이다. 일부 예문이나 설명이 이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힌다.

것으로 여겨진다. (9나')의 '잘 있는다'는 사용에 이상을 보이지 않으며 '잘 있다'보다 오히려 이 문맥에 어울린다. (9나')의 '잘 있는다'는 '떼쓰지 않고 놀고 있다' 정도의 의미로, (9가)의 '가만히 있는다'와 같이 구체적인 동작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9나)에서는 '아무 탈 없이 있다' 정도의 의미로, 주어의 내외적인 상황을 전체적으로 나타낸다.

동사 '있다'는 희곡의 지문이나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설명문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이 역시 동사 '있다'가 구체적인 동작을 지시하는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됨을 나타내준다.

(10) 가. (호위병들 묵묵부답으로 막아선 채로 있는다. 공주, 비틀거린다. 시녀들이 급히 부축한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최인훈)
나. 발바닥을 두드리기도 하고 팔도 돌려준다. 마사지를 계속한다. 담요를 덮고 1분 동안 있는다. (굿바이 아토피/최민희/21세기북스/2010)

(10가)는 희곡의 지문에 해당한다. 희곡에서 지문은 배우에게 연기를 지시하는 기능을 하는데 (10가)에서 '있는다'는 부사어 '막아선 채로'와 함께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0나)는 설명문에 해당한다. 아토피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마사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에서 '있는다'는 '그대로 있는다' 정도의 구체적인 동작을 지시한다. (10나)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명령의 효력을 지니는데 이에서도 '있는다'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위의 (8나)에서 현재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 '있는다'의 쓰임이 어색하였다. 그러나 '있는다'가 보다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할 때 현재의 일시적인 상황이나 습관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

(11) 가. ??철수는 지금 집에 있는다.
나. 지금 시간 8시 35분. 보통은 학원에 있어야 할 시간이지만 오늘은 집에 그냥 있는다.
다.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요즘은 집에만 있는다.

(11가)에서와 달리 (11나, 다)에서는 현재 사실을 나타내는 기능으로 '있는다'가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다. (11가)는 철수의 위치 정보만을 전달하나 (11나, 다)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동작도 파악된다. (11나)의 '오늘은 집에 그냥 있는다'는 '학원에 있는다'와 대조를 이루어 수업을 듣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다. (11다)는 최근까지는 밖에 나가 활동했다는 상황

이 함축된다. '있는다'는 이와 대조되어 밖에 나가지 않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희곡의 지문이나 지침서의 역할을 하는 설명문에서 '있는다'의 쓰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텍스트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명령의 효력을 지니는데 '있는다'가 이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사실은 '있는다'의 주어가 행위주로도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것이 언중들에게 폭넓게 수용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앞서 살펴본 이안구(2002: 11)에서 제시한 일부 예들은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 (12가, 나)는 행위주로의 주어의 역할이 부각되어 '있는다'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12) 가. 동생은 (보수는 상관하지 않고)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에만 <u>있는다</u>.
가.′ ??동생은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에 <u>있는다</u>.
나. 그는 (결혼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계속) 독신으로 <u>있는다</u>.
나.′ ??그는 독신으로 <u>있는다.</u>

(12가′, 나′)은 (12가, 나)와 수용성의 차이를 보인다. (12가′)은 (12가)의 괄호 안의 내용과 '회사에만'에서 보조사 '만'을 제거한 것으로 '있는다'의 수용성이 떨어진다. (12가)에서 '보수는 상관하지 않고'의 괄호 안의 배경 정보를 고려하면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에 있는 것은 동생이 의도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이 주어가 행위주로 파악될 만한 배경 정보가 제거되면 '있는다'의 쓰임이 어색해지는 것이다. (12나′)은 (12나)의 괄호 안의 내용을 제거한 것인데 이 역시 (12나)와 비교하면 수용성이 떨어진다. (12나)에서 입버릇처럼 말한다는 것은 별로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는 무의미한 발화에 가까움을 의미한다.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 절실하지 않음은 독신으로 있는 상황을 주어가 어느 정도는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나′)에서는 이러한 상황 정보가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있는다'의 쓰임이 어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9)]

동사 '있다'는 다섯 가지의 용법을 지니며 이것이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상황이나 주어의 행위주로의 역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동사 '계시다'와 비교하면 사용상의 제약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교가 관형사형, 의문형 등에서는 달리 설명되어야 한다.

---

9) 유현경(2013: 192 주7)에서는 '오늘은 시험 공부가 끝날 때까지 내가 학교에 [있는다/*있다].'에서 보듯이 화자의 의도성이 개입되면 동사로 활용되고 의도성이 줄어들면 형용사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유현경(2013)에서는 주어가 일인칭일 때만 '있는다'가 사용된다며 화자의 의도로 한정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12가, 나)와 같은 예를 고려하면 '있는다'는 일인칭 주어에 사용이 한정된다고 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사용이 주어의 의도성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본다.

'계시다'의 어간에 '-느-'가 통합되는 양상을 '있다'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어말 어미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평서형 어미 '-다', 감탄형 어미 '-군, -구나, -구려'와 결합하는 경우이며 다른 한 부류는 평서형 어미 '-은걸', 의문형 어미 '-은가, -으냐', 연결형 어미 '-은데', 관형사형 어미 '-은'과 결합하는 경우이다. '계시다'의 경우 이들 어미와 결합하여 '-느-' 통합형과 비통합형이 모두 실현되나 '있다'는 후자의 어미들과의 결합에서는 '-느-' 통합형으로만 실현된다.

(13)	평서형:	계시다/계신다	있다/있는다
	감탄형:	계시군/계시는군	있군/있는구나
		계시구려/계시는구려	있구려/있는구려
(14)	평서형:	계신걸/계시는걸	*있은걸/있는걸
	의문형:	계신가/계시는가	*있은가/있는가
		계시냐/계시느냐	*있으냐/있느냐
	연결형:	계신데/계시는데	*있은데/있는데
	관형사형:	계신/계시는	(*)있은[10]/있는

'계시다'의 경우 '-느-'가 통합되는 동사적 용법과 '-느-'가 통합되지 않는 형용사적 용법은 어말 어미들에 관계없이 앞서 설명된 바를 그대로 따른다. 그러나 '있다'의 경우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은' 등과의 결합에서는 의미 용법과 무관하게 현재 시제에서 '-느-'가 통합된 형식으로만 실현되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있다'의 형태론적 특징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15) 가. 영희는 돈이 <u>있는/*있은</u> 것이 들통 났다.
나. 영희는 돈이 <u>*있은/있던</u> 것이 들통 났다.
다. 할머니는 돈이 <u>*있으시는/있으신</u> 것이 들통 났다.

(16) 가. 시골집에 <u>있는/*있은</u> 영희가 네 동생이다.
나. 시골집에 <u>*있은/있던</u> 영희가 네 동생이다.
다. 높은 자리에 <u>*있으시는/?있으신</u> 분들을 만나고 나니 일이 술술 잘 풀린다.[11]

10) '있다'의 관형사형으로 '있는'뿐만 아니라 '있은'도 존재한다. 그러나 '있은'은 사건 명사를 주어로 취해 '후, 지, 뒤, 다음' 등의 명사가 후행하는 문맥에 한정적으로 사용된다. '있은'은 통시적으로 그 사용 영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안구(2002:12, 29)를 참고하기 바란다.

11) 주어에 인간 명사가 온 문장에서도 다음과 같이 '있으시다'가 사용된 예들이 나타난다. 화자, 청자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장면이나 하오체의 높임 표현에서 많이 발견된다. (나)는 아내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로,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에서 '있으시게'가 사용된 것이며 (다)의 '있으실래요?'도 연예오락 프로에서 진행자와 게스트가 서로 약간의 농담을 주고받는 친밀함을 보이는 장면에서 사용되

(15), (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있다'는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여 현재를 나타낼 때는 의미 용법에 관계없이 언제나 '-ㄴ-'가 통합된다. 그런데 동사와 '-ㄴ-'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양상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15, 16나)의 과거형의 경우 동사와 달리 '있은'은 제약되고 '있던'으로만 실현되며[12] (15, 16다)와 같이 선어말 어미 '-시-'가 통합되면 '-ㄴ-'의 통합이 제약되는 형용사의 특징을 보인다.[13] 따라서 관형사형 어미 등과의 결합에서 현재를 나타낼 때 '-ㄴ-'가 결합되는 점은 '있다'가 지닌 형태론적 특징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된다.[14]

3. 보조 용언 '계시다'

'계시다'가 보조 용언으로 사용될 때 형용사, 동사로의 활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17) 가. 어머니께서 지금 그 옷을 입고 {계시다, 계신다}.
나.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앓아누워 {계시다, 계신다}는 것이었다.

었다. (라)의 '있으시오'와 같이 하오체로 활용된 예가 많이 확인되는데 하오체와 같은 높임의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히라이 세이미(2002: 56)에 따르면 친분이 없고 권세 있는 청자를 대하는 장면에서 보다 조심스럽게 청자를 높이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에 의해 '말씀'이나 '걱정'과 같은 명사의 서술어로 '계시다'가 사용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 친밀이나 권세 등에 따른 높임의 위계적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있으시다'와 '계시다'가 선택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논문도 쓰시고 구체적인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신 분들 그~ 세 분하고…
(워크샵 #6, 한국어 세계화/전자전사자료)

나. 그냥 여기에 함께 있으시게 할 걸 하는 후회가 막급합니다. 여보! 제발 다시는 이런 작별이 없도록 해주세요. (동토/박경수/동아일보사/1969)

다. A: 저 가요? 끝났어요? B: 끝까지 있으실래요?
("집중분석 드라마여행 98/08/30, 전자전사자료"/"이본, 대화자")

라. 잔소리 말고 조병갑이를 잡을 때까지 여기 가만 있으시오.
(녹두장군6/송기숙/창작과 비평사/1987)

12) 과거형 '있은'은 제한적인 쓰임을 보인다. 아래 예에서 '있은'은 모문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는 상대 시제 과거로 기능한다. (가, 나)에서 '있은'은 사건성 명사를 주어로 취하여 '발생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며 (다)는 '머무르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있은'은 이러한 의미 용법에 한정되게 나타나며 (가)와 같이 의존 명사 '지, 후, 뒤, 다음' 등의 명사 앞에서 주로 쓰인다.
가. 6.25 동란이 있은 지도 벌써 40년이 되었다.
나. 지난달 28일 어린이회관 정문에서 있은 집회로 이름을 처음 알게 됐다.
다. 해인사에 있은 것은 겨우 봄부터 여름까지의 한 학기였다. (이상 이안구 2002: 29 (22))

13) 서정수(1991: 28)에서는 '있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되는 것을, 동사성을 반영하는 특징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ㄴ-'의 분포와 대립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형태에만 이끌린 처리로 여겨진다.

14) 이는 보조 용언 '있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음 장에서 보조 용언 '있다'와 '-ㄴ-'가 통합된 동사적 용법이 지닌 특징은 평서형 어미 '-다'와 감탄형 어미 앞에서임을 밝힌다.

(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 계시다', '-어 계시다' 모두 형용사로도, 동사로도 사용된다. 그 상적 기능에 구애됨이 없이 형용사, 동사 모두로 기능한다. (17가)는 옷을 입는 행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되며 또한 행동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 있는 상황으로도 해석된다. 두 상황 모두 형용사와 동사로의 활용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나타난다.

본용언 '계시다'의 형용사적 용법은 일부 상황에서 사용이 제약되기도 하였는데 보조 용언 '계시다'도 형용사적 용법에 제약이 나타난다. 다음과 같이 일시적인 상황에서는 형용사 활용형은 사용에 이상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된다.

(18) 가. 선생님께서는 그 집에 잠깐 살고 {계신다, ??계시다}.
나. 선생님께서는 그 집에 살고 {계신다, 계시다}.
(19) 가. 선생님께서는 고향에 잠깐 가 {계신다, ??계시다}.
나. 선생님께서는 고향에 가 {계신다, 계시다}.
(이상 김선영 2011: 79 (29, 30))

(18가, 19가)와 같이 부사 '잠깐'에 의해 일시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 '-고 계신다, -어 계신다'는 쓰임이 자연스러운 반면에 '-고 계시다, -어 계시다'는 어색하다. (18나, 19나)는 지속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서 두 유형의 활용형 모두 자연스럽게 쓰이는 사실과 대조된다.

보조 용언 '계시다'에 대한 현행 사전의 품사 처리를 살펴보면 '-고 계시다'는 아래 표 2의 사전 모두에 동사로 처리되어 있으며 '-어 계시다'는 『우리말』과 『표준』에서는 동사로, 『금성』과 『연세』에서는 형용사로 처리되었다.

표 2. '계시다'의 품사에 대한 사전 기술

	『우리말』	『금성』	『연세』	『표준』	세종
-고 계시다	동	동	동	동	×
-어 계시다	동	형	형	동	×
본용언 계시다	동	형	동	동	동 · 형

표 2의 현행 사전에서의 품사 처리만을 놓고 보면 '-고 계시다'는 주로 동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용언 '계시다'는 동사적 용법이 형용사적 용법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어 계시다'는 동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이 비등하게 쓰이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계시다'의 어간과 '-느-'의 통합 양상을 말뭉치에서 살펴보면 그 결과는 이러한 예측에 어긋나는 것으로 관찰된다. 보조 용언 '계시다'의 경우

본용언 '계시다'보다 '-느-' 통합형의 출현 빈도가 높게 관찰되나 어느 경우나 '-느-'와 통합되지 않은 활용형이 '-느-' 통합형보다 우세하게 쓰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계시다'의 '-느-'와의 결합 양상[15)]

	총빈도	'-느-' 비통합형		'-느-' 통합형	
-고 계시다	6785	합계 1414	-은(735)[16)], -다(244), -구나(4), -구만(5), -군(59), -냐(18), -은가(88), -은지(126), -은데(135)	합계 1040	-는(490), -는다(282), -는구나(5), -는구려(1), -는구만(8), -는군(63), -느냐(7), -는가(14), -는지(84), -는데(86)
-어 계시다	2365	합계 507	-은(329), -다(95), -구려(1), -군(3), -냐(9), -은가(20), -은데(31), -은지(19)	합계 322	-는(179), -는다(98), -는구나(1), -는구만(2), -는군(7), -느냐(4), -는가(2), -는지(8), -는데(21)
본용언 계시다	10867	합계 2969	-은(1762), -다(518), -은걸(3), -구나(5), -군(22), -냐(164), -은가(215), -은지(93), -은데(187)	합계 1162	-는(647), -는다(256), -는걸(2), -는구만(6), -는군(12), -느냐(28), -는가(30), -는지(44), -는데(137)

표 3에서 '-고 계시다'와 '-어 계시다'의 경우 관형사형을 배제하면 '-느-'가 통합되지 않은 활용형의 빈도수와 '-느-' 통합형의 빈도수는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근거하면 '-고 계시다, -어 계시다' 모두 형용사적 용법과 동사적 용법이 대등하게 쓰인다고 할 수 있다. 본용언 '계시다'의 경우 관형사형을 배제하면 '-느-'가 통합되지 않은 활용형의 빈도수가 '-느-' 통합형의 빈도수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보다 일반적인 용법은 형용사 용법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사전들에서 '계시다'를 대개 하나의 품사로만 처리하고 있는데 형용사 · 동사 양용 용언으로 처리해야 하며 표 3에 근거

15) 표 3의 빈도수는 1998, 2000, 2001년에 구축된 <21세기 세종계획>의 세종 말뭉치에서 검색된 용례를 바탕으로 하여 조사된 것이다. 1998년도 세종 말뭉치는 KIBS(국어 정보기반 구축 사업(1994-1997) 말뭉치의 표준화, 후처리 자료), NAKL(국어연구원 구축 국어 말뭉치의 표준화, 후처리 자료), SEJONG98(1998년도 구축 국어 말뭉치)로 구성되며 총 어절수는 92,469,290 개이다. 2000년도 말뭉치는 문어 텍스트와 일부 구어 텍스트의 말뭉치로 구성되었으며 총 어절수는 8,650,577 개이며 2001년도의 말뭉치 역시 문어 텍스트와 일부 구어 텍스트의 말뭉치로 구성되었으며 총 어절수는 7,177,310 개이다. 이는 모두 합하여 1억 8백만 가량의 어절 규모로, 주로 신문 기사, 소설, 정보적 텍스트 등의 문어 텍스트이며 소설의 대화 부분, 방송 인터뷰 등에 일부 구어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말뭉치 용례 검색 프로그램은 'Uniconc'를 이용하였다. 어간 '계시'를 검색어로 하여 자소 검색하였으며 검색된 용례를 활용형을 중심으로 하여 분류한 후에 이에서 동형이의(同型異意) 형식을 가려낸 후 그 수를 세는 방식으로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16) '계신'의 경우 모두 형용사 활용형으로 간주하였는데 동사의 과거형에 해당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계신'이 두 용법 중 어느 것으로 쓰인 것인지 정확하게 그 용법을 분별하기 어려워 표 3의 '계신'의 빈도수는 모두 포함하여 센 것임을 밝힌다.

하면 본용언 '계시다'의 경우 형용사 용법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보조 용언 '있다'의 경우를 살펴보자.[17] '-고 있다', '-어 있다'는 진행상과 결과상을 나타내는데 이 기능 모두에서 형용사, 동사 양용 용언으로 사용된다.

(20) 가. 아이들은 모두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있다, ?있는다}.
나. 재선여사는 배를 움켜잡고 우울한 상으로 앉아 {있다, ?있는다}.
(21) 가. 이 도시를 여러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있는다}.
나. 우리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있는다}.

(20가)는 '아이들'이 체육복을 갈아입는 행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또는 갈아입는 행동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이에서 '있는다'는 '있다'에 비해 다소 어색하나 사용 가능한 것으로 수용된다. (20나) 역시 '있는다'는 '있다'에 비해 다소 어색하나 사용 가능하다. (21)은 박진호(2003: 53, 44)에서 '-고 있다'와 '-어 있다'가 정태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된 예이다. (21)에서 '-고 있다'와 '-어 있다'는 '둘러싸다'가 나타내는 사건이 발생했음을 함축하지 않는데 이 점은 (20)에서의 상적 기능과 구별된다.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 있다'와 '-어 있다'가 정태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동사 활용형은 사용이 제약된다.

그런데 '있다'의 경우 동사적 용법을 상적 기능과만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선행 결합되는 동사의 성격에 따라 동사적 용법의 사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관찰되기 때문이다.

(22) 가. 언제까지고 이런 일을 <u>참고만 있는다</u>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나무꾼이 호랑이한테 <u>잡아먹히고 있는다.</u>
다. *밖에 눈이 <u>내리고 있는다.</u>

(22)에서 '-고 있는다'는 모두 진행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22가)를 제외하고 (22나, 다)는 사용에 이상을 보인다. (22가)에서 '참다'의 주어는 의지를 가진 행위주로 기능하는 데 반해 (22나, 다)의 '잡아먹히다, 내리다'의 주어는 의지를 지닌 행위주로 기능하지 않는다. (22가)와 같이 행위주 주어를 취하는 동사에 동사 '-고 있다'가 결합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말뭉치에서 '-고 있-'에 '-느-'가 통합된 용례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행위주 주어를 취하는 동사들과 통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17) 보조 용언 '있다'에 대한 설명은 김선영(2008)에서 관찰된 바에 의한 것이다. 일부 예문이나 설명이 이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힌다.

(23) 관리하다, 껴안다, 꿇다, 끌어안다, 담그다, 대다, 데리다, 듣다, 들다, 떨다, 먹다, 버티다, 보다, 부여잡다, 붙잡다, 살다, 세다, 손놓다, 안다, 웅크리다, 울다, 입다, 잠복하다, 잡다, 쥐다, 지내다, 참다, 타다, 품다 ……

주어가 행위주로 기능하지 않는 동사와의 통합에서는 이상을 보이며 실제 사용에서 행위주 주어를 취하는 동사들과 결합된 쓰임만이 확인되는 점에서 동사 '-고 있다'는 행위주 주어를 취하는 동사에 결합이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3)에 '껴안다, 꿇다, 부여잡다, 웅크리다, 쥐다' 등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동사 '-고 있다'는 특히 사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용언과 두드러진 통합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18)]

'-어 있다'와 '-느-'의 통합도 주어의 행위주성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 여겨진다. 말뭉치에서 '-어 있다'와 '-느-'가 통합된 용례를 검색하면 선행 용언으로 다음의 동사들이 확인된다.

(24) 가다, 기대다, 나가다, 남다, 눌러앉다, 눕다, 돌아앉다, 드러눕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머무르다, 묻히다, 물러서다, 붙다, 살다, 서다, 숨다, 안기다, 안주하다, 앉다 ……

(24)의 동사들도 (23)의 '-고 있다'에 선행하는 동사들과 마찬가지로 행위주 주어를 취해 그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동사 '-어 있다'는 '-고 있다'와 달리 행위주 주어를 취하는 동사에만 결합이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된다.

(25) 가. 중증장애인의 독립을 다루는 '독립선언'에서 주인공은 동생의 결혼식에도 가지 못한 채 집에 갇혀 있는다.
(장애인이 주인공 되는 만화웹진 창간/일다/2005.12.13)
나. 안아달라 칭얼거려 깨어있는 동안은 거의 안겨 있는다.
(http://www.cinepox.ezday.co.kr/miz/baby/babyNote/baby-Diary/view_diary)

(26) 가. 지난번 라운딩에서 겪었던 특정 홀에서의 실수에 대한 기억이 성공했던 기억보다 골퍼의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는다.
(골프, 멘탈이 반(半)이다/홍준희/대한미디어/2010)

---

18) 박진호(2003: 47-48)에서는 '-고 있다'와 빈번히 결합하는 선행 동사의 의미 부류로 47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동사 '-고 있다'와 결합 가능한 동사의 의미 부류는 '신체 부위를 움직이는 동작, 자세 취하기, 소유, 신체 소지, 지각, 섭취, 소재, 생리 현상, 태도, 승차' 정도에 한정된다.

나. 1984년, 이 곡은 끝내 빌보드 100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26주간 머물러 있는다.
(http://blog.naver.com/holmes_eunha/130177297674)

동사 '-어 있다'는 피동사나 선행 동사가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통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가)는 장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방안에 갇힌 장애인의 상황을 나타내며 (25나)는 생후 1개월이 막 지난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피동문에 '-어 있는다'가 결합된 예가 나타나며 (26)과 같이 '기억', '노래'를 주어로 취해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동사와도 결합된 예가 나타난다.

동사 '-고 있다'는 행위주 주어를 취하는 동사와만 통합되는 제약이 나타난다. 동사 '-어 있다'는 행위주 주어를 취하는 동사와만 결합되는 제약을 보이지 않으나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동사들과 두드러진 결합을 보인다. 세종 현대 국어 말뭉치에서 '-어 있는다'의 용례가 140회가 검색되며 이 중 인간 명사를 행위주 주어로 취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남아 있는다', '누워 있는다', '머물러 있는다', '서 있는다', '앉아 있는다'의 용례가 각각 21회, 10회, 11회, 51회, 23회가 나타나 전체 용례의 83%를 차지한다.

보조 용언 '있다'는 '계시다'의 경우와 비교하면 사용 제약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보조 용언 '계시다'의 경우 일시적인 상황을 나타낼 때 형용사 활용형은 사용에 이상을 보이는 점을 제외하면 언제나 동사, 형용사로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있다'의 경우 동사적 용법은 행위주 주어를 취하는 동사에 결합이 한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있다'의 동사적 용법에서 큰 제약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 결 론

'계시다'의 형용사 · 동사 양용 용언으로의 쓰임을 '있다'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본용언 '계시다'는 '있다'가 인간 명사를 주어로 취하는 용법들의 높임말로 사용되며 각각의 용법에서 '계시다'는 형용사로도, 동사로도 활용될 수 있다. 다만 형용사 '계시다'의 경우 동적인 상황이나 반복적, 일시적인 상황에서는 사용이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용언 '있다'는 인간 명사를 주어로 취하는 용법들에서 일부 용법을 제외하고 동사로도 사용된다. 다만 동사 '있다'는 이것이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상황이나 주어의 행위주로의 역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동사 '있다'는 '계시다'와 비교하면 사용상의 제약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관형사형 어미 등과의 결합에서는 '있다'는 의미 용법에 상관없이

현재 시제에서 '-느-'가 통합된 형식으로만 실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것이 동사와 '-느-'의 통합 양상과 달리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를 '있다'가 지닌 형태론적 특징으로 설명하였다.

보조 용언 '계시다'는 '-고 계시다', '-어 계시다'의 상적 기능에 구애됨이 없이 형용사, 동사 모두로 기능한다. 보조 용언 '계시다'의 형용사적 용법에서도 제약이 나타나는데 '잠깐, 잠시' 등의 부사어의 수식을 받아 일시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 형용사적 용법은 사용에 이상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보조 용언 '있다'의 경우 동사적 용법은 선행 결합하는 동사의 특성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 '-고 있다'는 행위주 주어를 취하는 동사와만 통합되는 제약이 나타난다. 동사 '-어 있다'는 행위주 주어를 취하는 동사와만 결합하는 제약을 보이지 않으나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동사들과 두드러진 결합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계시다'와 '있다'가 위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못했다. 양용 용언으로서의 특징이 달리 나타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은 한국어의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 짓는 다양한 요인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편. (2009).『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 편. (1999).『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김민수 · 고영근 · 임홍빈 · 이승재 편. (1991).『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 연구원 편. (1998).『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한글학회 편. (1992).『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21세기 세종 계획. (2007). 세종 전자 사전.

[연구논저]

김기혁. (1998). "존재와 시간의 국어 범주화",『한글』, 240 · 241, 206-237.

김동식. (1988). "선어말 어미 '-느-'에 대하여",『언어』, 13.1, 171-202.

김선영. (2008). "'있-'과 '-느-'의 統合樣相의 特徵",『語文硏究』, 138, 171-191.

김선영. (2011).『형용사 · 동사 양용 용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김차균. (1982). "'있다'의 의미연구", 『언어학』, 5, 55-82.
남기심 · 고영근. (1985/1993),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塔出版社.
도원영. (2002). 『국어 형용성 동사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목정수. (2001). "한국어 관형사와 형용사 범주에 관한 연구 -체계적 품사론을 위하여-", 『언어학』, 31, 71-99.
목정수. (2008). "형태론 9권 2호의 기고에 대한 논평(1)", 『형태론』, 10.2, 393-401.
문숙영. (1998). "제주도 방언의 시상 형태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51.
문숙영. (2009). "현대국어 "-느-"의 범주와 형용사와의 결합제약", 『한국어학』, 45, 한국어학회, 199-226.
박부자. (2001). "용언어간 '없-'의 활용 양상의 통시적 변화",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태학사, 661-702.
박양규. (1975). "所有와 所在", 『국어학』, 3, 93-118.
박진호. (2003). 『한국어의 동사와 문법요소의 결합양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배주채. (2000). "'있다'와 '계시다'의 품사에 대한 사전 기술", 『성심어문논집』, 22, 성심어문학회, 223-245.
서정수. (1991). "풀이말 '있/계시다'에 관하여", 『국어의 이해와 인식』(갈음 김석득교수 회갑기념논문집), 서울: 한국문화사, 25-37.
서정수. (1996).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송철의. (2001). "용언 '있다'의 통시적 발달에 대하여", 조선어연구회(170회) 발표문. [송철의(2008)에 재수록, 407-445]
송철의. (2008). 『한국어 형태음운론적 연구』, 파주: 태학사.
신선경. (2002). 『'있다'의 어휘 의미와 통사』, 서울: 태학사.
안병희. (1959/1978).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對한 形態論的 硏究』, 서울: 塔出版社.
안병희 · 이광호. (1990). 『중세국어문법론』, 서울: 학연사.
유현경. (2013). "'있다'의 품사론", 『어문론총』, 59, 187-210.
윤재학. (1999). "'존재동사'에 관하여", 『언어』, 24.1, 87-97.
이기갑. (1985). "현실법 표지 '-ᄂᆞ-'의 변천", 『역사언어학』, 서울: 전예원, 241-261.
이기문. (1962). "中世國語의 特殊 語幹 交替에 대하여", 『진단학보』, 23, 119-153.
이승욱. (1986). "존재동사 'Øᄋᆡ-'의 변의", 『국어학신연구』, I, 서울: 탑출판사, 348-366.
이안구. (2002). "'있다'와 '없다'에 대한 통시적 연구", 『국어연구』, 169.

이영경. (2003가).『중세국어 형용사 구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이영경. (2003나). "중세국어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에 관하여",『형태론』, 5.2, 273-295.
이완응. (1929).『中等教科朝鮮語文典』, 朝鮮語研究會,『역대한국문법대계』, 1-40.
이현희. (1993). "국어 문법사 기술의 몇 문제",『한국어문』, 2, 57-77.
이희승. (1956). "存在詞 '있다'에 대하여- 그 形態要素로의 發展에 對한 考察",『論文集』, 3(서울대), 17-47.
임홍빈. (2001). "국어 품사 분류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태학사, 705-761.
정언학. (1995).『'있(다), 없(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서울.
최기용. (1998). "'있-'의 범주, 논항 구조 그리고 능격성",『국어학』, 32, 107-134.
최현배. (1937/1955).『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홍종림. (1993).『제주방언의 양태와 상』, 서울: 한신문화사.
히라이 세이미. (2002). "'계시다'에 대한 연구",『국어연구』, 171.

김선영
150-8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현대2차아파트 1101호
전자우편 : bigrp@dreamwiz.com

접 수 일 자 : 2014. 2. 21
수정본 접수 : 2014. 3. 24
게 재 결 정 : 2014. 3. 31